

#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경이'

구조물이며 한 층에 29개의 방이 있었다고 한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어 올라가 보았다.

이 줄리안 사원에서 옛 수행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사방을 돌로 쌓아 만든 방인데, 한 사람이 기거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방이다. 이 방에서 두런두런 소리 내어 경전을 읽었을 것이며, 참선도 하였을 것이다. 두 세 벌의 가사와 바루,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이 소중한 물품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어느 수행자의 방에 앉아보았다.

아쇼카의 흥망을 계기로 간다라 지역에서는 불교가 점차 흥성했다. 마우리아왕조를 이어 이곳을 지배한 그리스인들도 불교에 상당히 매료되었다. 메난드로스라는 왕이 나와서 카불분지, 페샤와르 분지, 스와트, 탁실라를 거점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불교경전에는 그리스인 왕 메난드로스와 인도의 승려인 나가세나가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던 것을 기록한 <말란다팡하>라는 경전이 있다.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이라고도 한다.

줄리안 사원의 입장권으로 다르마라지카사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풀로 뒤덮인 스투파가 보인다. 아쇼카왕이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를 만들면서 석가모니의 유품을 모셨다고 한다. <잠자는 악공>, <고뇌하는 악공>이 출토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많은 불상들이 파괴되었으며, 거대한 부처님의 두 발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너무나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발톱, 그 발에 입 맞추고 싶었다. 평생을 길에서 보낸 부처님의 입대기를 떠올리면 서 그 발이 바로 법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묘사체도 2층 구조물인데, 한 층에 52개의 방이 있었다고 하니 큰 사원이었음에 틀림없다. 빨래를 하던 커다란 돌판도 남아 있다.

쿠산왕조의 카니슈카왕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의해 눈부시게 발전한 불교는 5세기에 등장한 예프탈왕조의 미히라클라왕에 의해 절멸하고 만다. 현장법사는 미히라클라왕에 의해 사원이 파괴되고 승려들을 비롯한 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육됨으로써 불교가 거의 절멸되었다고 <대당서역기>에 적고 있다.

## #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다

페샤와르와 스와트를 가고 싶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 갈 수가 없었다. 페샤와르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길목이며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터전이라고 한다. 페샤와르에서 탁티바히사원과 파수본쪽이 여는 시장을 보고 싶었다. 또 스와트에는 반가사유자의 자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커다란 연꽃을 든 연화수 보살상이 있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일정은 카라코람 하이웨이(KK히)를 타고 칠라스로 해서 베삼까지 가는 것이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도가 높은 도로를 말한다. 원래는 사람이나 말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



## 라호르 '고행하는 부처상' 간다라미술 대표작 아쇼카왕 다르마라지카사원에서 부처 유골 모셔 암각화로 유명한 칠라스 간다라 미술 전통 이어

고 가파른 길이였다. 이 길은 동서교역의 통로였기에 비단, 도자기, 향신료를 비롯한 많은 물품들이 오고갔다. 또 헤초 스님을 비롯하여 천축으로 법을 구하러 가는 많은 구법승들이 떠나들었던 길이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1966년에 착공하여 1978년에 완공하였으며 총 길이 1300Km인데 900Km는 파키스탄에서 400Km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공사기간동안 900명의 파키스탄과 80명의 중국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 패스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피의 고개'라고 한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잘 닦여진 길이지만 아래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절벽이요, 위로 쳐다보면 커다란 바위덩이가 아래로 굴러 내릴 것만 같다. 계속해서 인더스강을 끼고 달리는데 그 강물은 잿빛을 띤 흙탕물이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주지는 못하였다.

헤초 스님은 카라코람 고개를 넘으면서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였다.

"그대는 서쪽 지역이 멀다하고/ 이 몸은 동쪽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길은 험하고 산파투는 눈으로 덮여있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떼가 길을 트는구나./ 하늘을 나는 새도 꺾이지는 산에 놀라고/ 사냥은 기우뚱거리는 다리 건너기 힘든네./ 평생에 눈을 흘린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은 하얗게 눈물 뿌리도다."

평생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헤초 스님의

두렵고 암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카라코람 하이웨이에는 수백 개의 암각화로 유명한 칠라스가 있다. 칠라스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동서교역의 중요한 루트로 이용되어 왔다. 동물이나 사냥꾼 등 선사시대부터 새겨진 암각화가 있으며, 기원전후 1세기 사이에 불교를 주제로 해서 조성된 암각화들도 있다. 그 뒤 5세기부터 8세기까지 또다시 수많은 암각화들이 새겨졌는데, 이 암각화들은 간다라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암각화를 보기 위해서 다리를 건넜다. 산도 아니요 언덕도 아닌 그곳에는 가시가 많은 사막의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운기가 도는 갈색 바위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났고, 바위 표면에는 부처님과 법륜(法輪), 불탑들이 얇게 새겨져 있다. 불탑의 양식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양식과 닮아 있기에 천축으로 가는 구법승이 그랬을 것이라 추측해 보았다. 사무치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롯이 새겨진 불탑에 삼배를 올렸다.

칠라스를 지나 베삼에 도착하니 밤이다. 베삼은 전기사정이 좋지 않은지 온 동네가 어둠에 잠겨 있다. 다음날 이른 아침을 먹고 또 다시 길을 떠났다. 어제 하루 종일 보고 온 풍광이 또 다시 눈앞에 펼쳐진다. 길기트에 가까워올수록 검은이 찾아진다. 길기트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며 파키스탄의 중요한 군사지역이다. 길기트 또한 옛날부터 실크로드의 도시이며 불교의 중심지였다.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잘도 달린다. 가도 가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

한 산들이 이어진다. 도로 중간 중간에 넘어진 트럭들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데도 암을 뚫고 가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거나 나무 한 짝을 해서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곳에서는 겸손과 조화와 순응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구법승들의 간절함 뱀 칼가부처

길기트의 시장은 참으로 은성하였다. 옛 도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향신료와 과일 등 먹거리가 주를 이루었다. 길기트 사람들은 사냥기 때문에 함부로 여자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칼가부처(Kargah Buddha)를 보러가기 위해서 산길을 걸었다. 누군가가 칼로 잘라 놓은 듯한 단애에 새겨진 마애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러왔다. 절룩한 허리에 허벅지가 강조된 것이 간다라 불상의 양식임을 알 수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에 어떻게 새겼을까? 이런 척박한 곳에 부처님의 향기라도 남기고 싶어 했던 구법승들의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길기트를 거쳐 훈자르 갔다. 훈자는 400년경부터 남부아시아와 중간 사이에 비단, 차, 도자기, 상아 등을 교류하였던 무역로이다. 이 길을 따라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도 지나갔다고 하니, 실크로드의 한 지류임에 틀림없다. 훈자는 장수마을로 유명한데 그 비결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 검은빛을 띤 강물에 있다고 한다. 지금은 살구 수확기라 집집마다 살구를 팔고 있었다.

훈자는 알티트, 카리마바드, 가네쉬 부족이 모여 만든 왕국이었다. 13세기쯤 티베트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발티스트에 올랐다. 이곳에 오르자 흰눈을 이고 있는 라카프시가 보이고, 손가락을 짝 펼친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레이디스 핑거(Lady's Finger)가 보인다. 3층으로 된 성에는 미르왕의 사신이 걸려 있으며, 왕실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날 지프차를 타고 빙하 트레킹에 나섰다. 옛날 대상들이 다녔던 실크로드가 보이고 그 부근에 삼층 돌탑이 보인다. 어린이가 쌓아 놓은 듯한 돌탑이지만 이것 또한 불교의 자취라 여겨서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빙하로 가는 길은 온통 돌맹이 투성이다. 햇살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운데, 빙하는 수만 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자연의 그 깊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는데 몸이 휘청거리바로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연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인간 세상을 한 번씩 뒤흔들어 놓고 가나 보다.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여행을 통해 이러한 것을 배운다는 것이 슬픈 일이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다. **본지 논설위원 ·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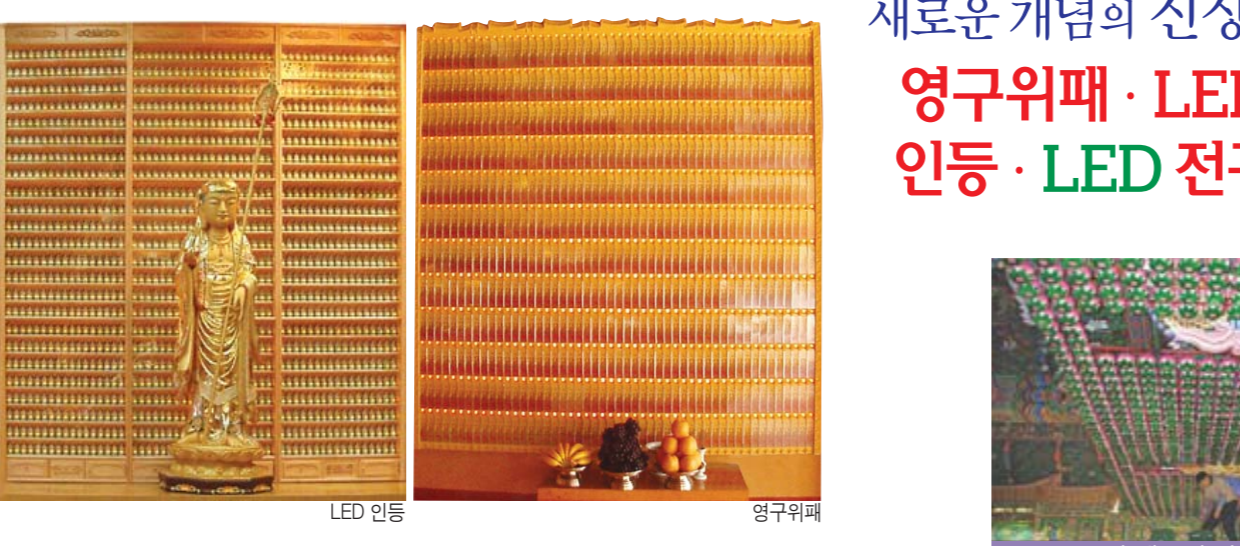


1 칠라스의 암각화  
2 훈자의 발티드성  
3 길기트의 칼가 부처  
4 줄리안 사원의 스투파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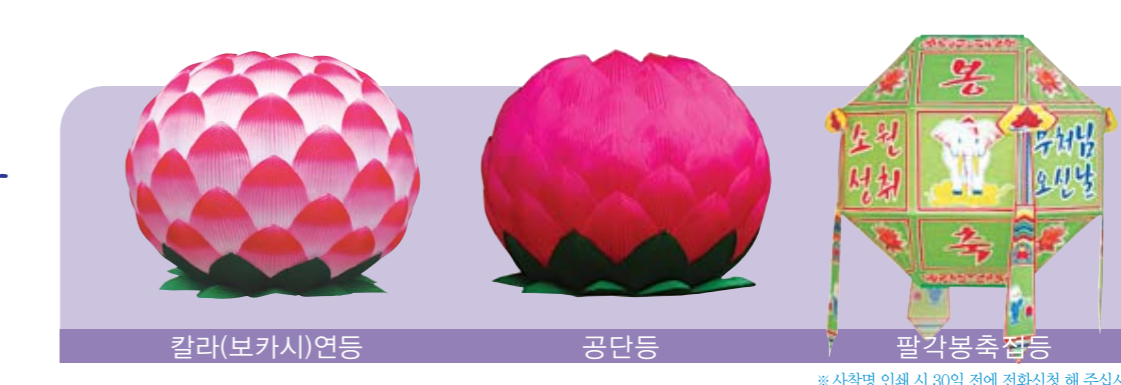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도중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을 공고 합니다.

# 아름다운 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